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'11년 2월 2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아주협력과장(2110-5371), 오종희 사무관(2110-5375)		

지경부 박영준 차관, 서남아 신흥시장 공략 나선다

- 2.21(월)~2.25(금) 인도(뭄바이, 델리), 스리랑카, 네팔 방문-

- 특히, 스리랑카, 네팔은 제18차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방문

□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2.20(일)~2.26(토)간 발전, 풍력단지 등 우리기업의 **플랜트 수주 지원** 등 산업협력 확대와 **서남아 신흥시장 선점**을 위해 **인도, 스리랑카, 네팔 3개국**을 방문함

○ 특히, 스리랑카, 네팔은 **지식경제부 최초의 고위급 방문**으로 한국의 **제18차 당사국총회(COP 18)** 유치('12년 예정)에 대한 지지 요청을 위해 **대통령 특사자격**으로 방문할 예정임

* 인도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2.14일 방문하여 인도 환경부장관, 외교부장관 면담

* '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'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* 유치 의사를 표명, 현재 카타르와 경합중임

□ 2.21(월)~22(화) 양일간 박차관은 인도 뭄바이와 뉴델리에서 **마하라쉬트라주 총리, 중앙정부의 상공부장관, 전력부장관** 등과 면담하고, 「한-인도 비즈니스 포럼」 및 「현지진출기업간담회」를 개최할 계획임

○ 인도와는 **포스코 프로젝트**(오릿사주 제철소 건설, 인도 Sail사와 합작 등)의 원활한 추진 및 애로 해소, **발전소 건설** 등 플랜트 수주, **델리-뭄바이 산업대동맥 프로젝트**에 우리기업 참여, **원자력, 바이오, IT 분야 협력**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

* 델리-뭄바이 산업대동맥 프로젝트 : 인도 최대 경제중심지인 뭄바이와 수도인 델리를 연결하는 복선고속철도를 만들고 연접지역에 신도시, 산업단지, 물류거점, 투자거점을 건설하는 인도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계획

○ 또한, **양국 유력기업인 130여명이 참석**하는 「한-인도 비즈니스 포럼」에서 박차관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, 「현지진출간담회」에서는 **인도의 투자환경 개선 방향**을 협의할 계획임

□ 2.23(수) 박차관은 대통령 특사로서 스리랑카 **대통령을 예방**하고 경제조정부장관, 상공부장관, 외교부장관 등을 면담하여, **제18차 당사국총회(COP 18) 유치** 등을 위한 고위급 외교를 펼칠 예정임

○ 지난해 스리랑카 경제조정부장관 방한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의 연장선에서 **IT협력, 발전소 건설 및 풍력단지 조성에 우리 기업 참여** 등을 주로 협의할 계획임

○ 스리랑카는 **'09년 내전을 종식**하고, 現 라자팍세 대통령이 타밀 반군의 본거지였던 북서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**인프라 구축**을 추진중인 바 우리기업의 참여가 유망할 것으로 보임

□ 박차관은 2.25일 네팔에서 **제18차 당사국총회(COP 18) 유치**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서 **대통령 및 총리를 예방**하고 주네팔 한인상공회의소 설립식에 참여할 계획임

○ 양국은 네팔의 지형적 특성을 극복할 **IT 협력방안, 라흐갓 등 수력발전소** 건설 등에 우리기업 참여, 유·무상 원조를 통한 개발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임

○ 박차관은 네팔 부총리와 함께 **주네팔 한인상공회의소 설립식**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-네팔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

○ **인구 3,000만의 네팔**은 세계 1,2위 인구대국인 **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**로, **자체 내수시장** 뿐만 아니라 **수출 거점**으로서의 투자가치가 클 것으로 전망

□ 인도, 스리랑카, 네팔은 모두 **우리의 수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**하는 국가들로서 이번 방문에는 무역투자사절단(17개사)이 동행하여 **우리의 균형적 무역확대 의지**를 표명할 계획임